여수해역 올 첫 적조주의보

화정면 개도~남면 소리도 인근

전남도, 황토 살포 등 방제 나서

여수시 해역 일원에 올해 들어 첫 적조주의보가 발령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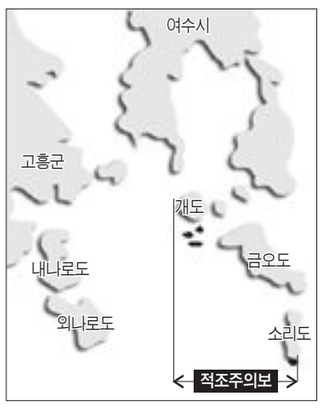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6시를 기해 여수시 화정면 개도 서측 종단과 여수시 남면 소리도 등대 종단해역에 적조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해역에서 수산피해 유발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 농도가 기준치인 1㎖당 300개체를 초과한 1㎖당 최대 550개체가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31일 현재 여수 주변수역에는 기준치 이상 농도의 폭 200m, 길이 500m 규모의 코클로디니움 적조생물로 구성된 적조띠 3~5개가 발견됐다고 과학원은 밝혔다.

과학원은 장마로 인해 육상의 영양물질이 빗물과 함께 연안으로 유입되면서 영양염류가 풍부해졌고 장마 후 연안수온의 상승과 일조량 증가로 적조생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과학원은 또 이 해역의 현재 표층수온은 23.4~24.9도로, 코클로디니움 적조생물의 성장에 적합한 수온대가 형성돼 있어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코클로디니움 적조생물의 밀도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적조 발생 해역도 〈7월 31일 현재〉



전남도와 여수시는 적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지역 어업인들을 중심으로 방제단을 편성, 적조생물이 양식장 인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황토를 살포하는 등 적조 방제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적조 피해가 우려되는 해상가두리 양식장의 경우 양식어류를 안전해역의 가두리로 이동하거나 산소발생기를 가동하는 동시에 먹이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육상양식장에서는 적조 진행상황에 따라 육상수조의 수위를 높이는 한편 취수와 먹이공급을 중단하고, 산소발생기를 가동해 액화산소를 공급하는 등 관련 장비를 모두 가동해 수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정신지체아 장애인 병영체험

지난달 31일 담양군 무정면 11공수여단 연병장에서 열린 '정신지체아 장애인 병영체험'. 광주시 북구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엠마우스 복지관' 등 3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40명이 참여했다. 전투모와 전투복을 착용한 장애우들이 경례연습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홍도 해수욕장 해파리 습격

수영하던 40대 쏘여 호흡 곤란·마비 증세

전남지역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던 피서객이 독성 해파리에 쏘여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등 지난해보다 3배가량 많은 독성 해파리가 관측돼 피서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30일 오후 6시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1구 몽돌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던 이모(43·경기도 평택)씨가 독성 해파리에 쏘여 호흡 곤란과 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씨는 해파리에 쏘인 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몸의 일부가 마비돼 목포해경 조난 헬기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최근 남해안 지역에서 출몰하기 시작한 유독성 노무라입깃해파리'(Nomura's jellyfish)에 쏘인 것으로 해경은 추정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해파리 출현보고'에 따르면 18일부터 1주일 간 동중국해~황해 남부해역의 유독성 '노무라입깃해파리' 밀도 조사에서 100㎥당 3천268개체(평균 크기 50㎝)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해역에서 발견된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제주해협을 거쳐 남해안을 지나 대한해협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동 길목인 남해에서 개체수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과학원은 예측했다.

과학원은 앞서 지난달 25일 여수 갈도 앞 해상에서 조사를 벌인 결과 '노무라입깃해파리'가 1회에 최고 10t씩 그물에 걸려드는 등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어 '해파리 주의보'를 발령했었다.

한편 남해에서 최근 독성인 강한 '커튼원양해파리', '작은부레관해파리'등이 잇따라 발견됐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해파리에 쏘이면 알코올로 씻어야

▲노무라입깃해파리=독성을 띠고 있고 완전 성숙하는 9~10월에는 지름 1m · 무게 200kg 이상까지 나간다. 해파리 수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거북·쥐치 등의 천적이 무분별한 어획으로 인해 줄어들었기 때문. 한 번에 1억 개 이상의 알을 낳는다.

쏘이면 상처를 맨손으로 만지지 말고 식초나 알코올로 씻어낸 후 따뜻한 물로 마사지하고 통증이 심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신정아' 검찰수사 답보

미국서 귀국 불투명

가짜 학위 파문을 일으킨 전 동국대 교수 신정아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당사자인 신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0일 신씨를 비엔날레의 예술감독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핵심 실무를 담당한 비엔날레 사무국 간부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선임 경위와 '가짜학위' 사전인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또 비엔날레 측이 접수한 고소장을 토대로 관련 서류 제출을 비엔날레 측에 요청하고 허위이력서 제출과정 등 신씨의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신씨가 미국에 체류중인 데다 귀국 여부도 불투명해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검찰이 신씨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출석요구서를 신씨의 주소지로 보내야 하지만, 신씨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출석요구서의 전달 여부도 미지수다.

더욱이 강력사건도 아니어서 '인터폴'과의 공조수사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씨가 미국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 무성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신씨가 없더라도 광주비엔날레 국내 공동감독으로 선임되기까지 누가 후보로 추천했는지, 또 부당한 '외압'은 없었는지 등 여러 가지 '설'과 '의혹'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동국대의 고소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과 별개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고소장 내용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참 〈7276〉 김종두

초등학생 유괴 대학생 등 3명 검거

CCTV에 차 찍혀

광주 남부경찰은 초등학생을 유괴해 7천만원의 몸값을 요구한 강모(25)씨와 동거녀 이모(여·24)씨, 강씨의 사촌 이모(26·C대학교 4년)씨를 붙잡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 등은 지난달 24일 오전 9시 7분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 H아파트 앞 골목에서 한문교실에 가던 김모(8·광주시 남구 진월동)양에게 접근해 길을 물어보는 척하다가 유괴한 뒤 김양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7천만원의 몸값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강씨 등은 경찰이 자신들을 쫓는 것을 눈치채고 유괴 4시간 만에 김양을 풀어준 뒤 목포 등지에서 은신 하다가 경찰이 CCTV에 찍힌 차량을 추적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김여울기자 wool@

돈 뜯은 신문사 사장 구속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1일 환경오염 사실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A일보 사장 배모(66)씨를 공갈·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배씨는 2003년 3월께 나주시 소재 B 오리 가공 공장에서 도축시 발생하는 폐수가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사진 촬영한 뒤 이를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최근까지 14회에 걸쳐 현금과 오리 약 1천200여 마리(시가 720만원 상당)를 기부형식으로 갈취한 혐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엄마가 딸 목졸라 살해

해남경찰은 지난달 31일 남자친구와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자신의 딸을 목 졸라 살해한 유모(여·41·부산시 해운대구)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부산남부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께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C 모텔에 투숙 중인 딸 E모(14·부산 H중 2년)양을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고 있던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발정 난 암소 도주 5시간 난동

쌍나팔

○…발정이 난 암소가 주인의 가슴을 걷어차고 도주한 뒤 5시간 동안 난동을 부리다가 119구조대에 의해 포획.

○…지난달 31일 오전 9시20분께 보성군 복내면 김모(67)씨 소유의 2년생 암소가 화물차에서 내리던 중 갑자기 김씨의 가슴을 뒷발로 걷어차고 도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은 2m 높이의 언덕을 뛰어내려 도망가는 등 마을 일대를 돌며 도주하는 암소를 잡기 위해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반복하다가 오후 2시40분께 마취총을 쏴 어렵게 포획.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김씨는 "발정이 났다기에 새끼를 낳게 하려고 데려왔는데, 난동을 부리다 오른쪽 앞 다리가 부러져 결국은 시가의 절반인 180만원에 팔았다"며 아쉬움을 토로. /보성=안구일기자 giahn@